

나는 방금 손실을 입었다 : 이제 어찌죠, 하나님?

결에

빅 콜먼(Vic Coleman)

소개

상실은 삶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애완 동물, 직업, 건강, 소유물, 부모, 자녀 등 인생에서 손실을 입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우리에게 깊은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시험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과 더 강한 관계를 맺고 시련을 극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차이점은 뭔가요?

이 연구는 상실의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과에서 사용된 성구들

이사야 44:24

로마서 8:32

고린도후서 5:16 – 21

로마서 8:28

고린도후서 1:3-11

시편 18 : 16 – 19

시편 118 : 5 – 9

잠언 19:21, 16:4, 16:9

이사야 14:24

이사야 25:1

왜?

이것은 상실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골치 아픈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로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야?" "왜 하필 지금이지?" "왜 하필 그/그녀/그들인가?" 그것은 여전히 "왜?"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명을

원합니다. 이 질문에는 강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고통, 분노, 좌절, 실망, 슬픔.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대답을 더욱 요구하게 만든다. "맙소사,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3 년 전, 제 아내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의 수술,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던 그 달에, 아내는 언니 한 명이 5 주 전에 호스피스에 입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도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사들이 포기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인 브렌다는 남편에게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다른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두 달 후, 브렌다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세상을 떠났다.

5 주 후, 오전 6 시 30 분에 당시 텍사스에 살고 있던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오빠 한 명이 그날 아침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그토록 충격적인 것은 그가 그 무리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항상 과일과 채소를 먹었다. 그는 과체중이 아니었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교적 젊었고(48 세)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왜 빌이요, 주님이요? 하지만 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필 빌이요, 주님?"

1993 년 여름은 우리에게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3 개월 만에 가까운 친척 네 명을 잃었습니다. 나는 삼촌과 사촌을 잃었다. 제 아내는 두 명의 형제자매를 잃었습니다 - 이 모든 것은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왜?'라고 물을 권리"가 있다면 그건 우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질문을 다루는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권자란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우선합니다. 몇몇 성구들은 그분의 주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24 을 읽어 보세요.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신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 혼자서. 우리 모두와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기둥"이 있다.

God Is Sovereign

하나님은 나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몇 가지 성구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는 로마서 8장 32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깊고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의 완전한 아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깊고 영원한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죄 많은 인간을 거룩하신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6-21 절을 읽으세요. "화해"는 그리스어 작품 "katallasso"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호의로 돌아가다,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God Is Sovereign

God Loves
Me Beyond
Measure

아내와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동 성추행자나 살인자 또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들 중 한 명을 죽이도록 내버려 둘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고, 예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가 아동

성추행자, 살인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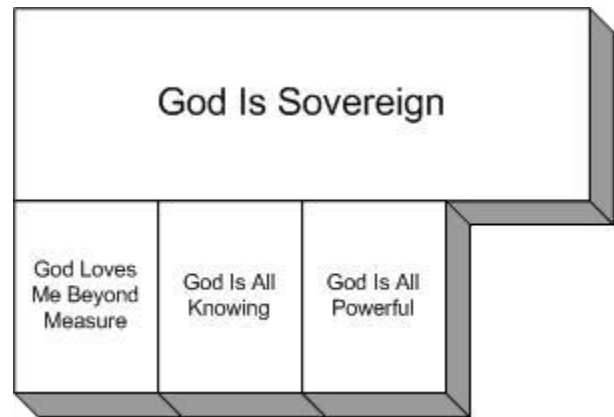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분의 주재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해졌던 때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십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분의 주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필수적이다. 로마서 8:28 을 읽어 보시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지혜를 지니셨으며, 전능하시다면, 나는 그분이 궁극적으로 나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손실이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우리가 상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실로부터 선을 가져오시는 한 가지 방법은 고린도후서 1:3-11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통찰력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3 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 "금홍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NIV)에 주목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고통에 둔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8:16-19 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두"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의 일부만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십니다 . 시편 118:5-9 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이 받은 위로로 어떤 환난 중에 있는 우리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장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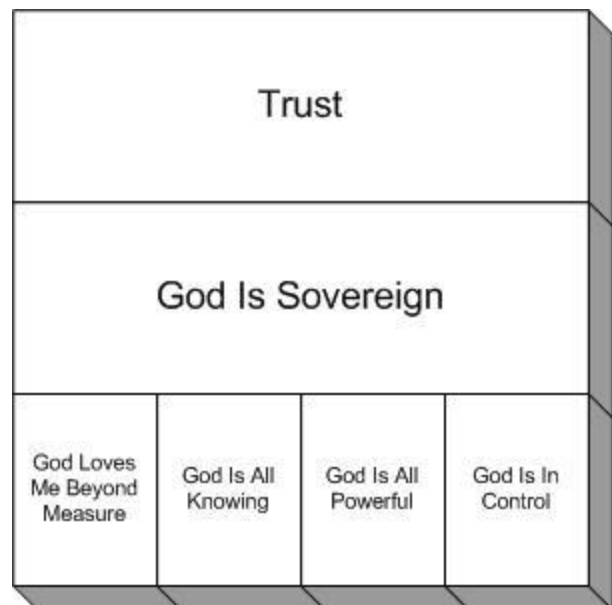
2002 년 10 월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한 남자를 위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우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이제 저는 말하자면 "불"을 겪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좋아

했는가? 아니요. 다시 겪고 싶습니까?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예.

8-11 절은 바울이 왜 그가 직면했던 고난을 겪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9 절이 열쇠입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고, 풍요롭고, 친밀한 정도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만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성장합니다. 그분과 우리의 "화해"가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상실의 시기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분의 주권의 마지막 "기둥"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21, 16:4, 16:9, 이사야 14:24, 이사야 25:1 을 읽어 보세요. 이 모든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전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상실의 시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파리에게 잡아먹혀 봉사의 직무를 무력화시킨 적이 있었는가?

요점: 파리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파리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 "완전한 평화"는 "shalowm shalowm"에서 번역된 것으로, 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완전하고 완전하며 건전합니다. 파리가 당신 주위로 떼를 지어 다닐 수 있지만 당신의 평화는 완벽할 것입니다.

요약

예수는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파리가 올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주위에 그 "영적 벽"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